

# 대학생에서 기질 및 성격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sup>1</sup> 국립공주대학교 보건진료소,<sup>2</sup>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sup>3</sup>

송성환<sup>1</sup> · 이혜경<sup>2</sup> · 김준원<sup>1</sup> · 이건석<sup>1,3</sup>

## Social Support According to Temperament and Character in College Students

Sung-Hwan Song, MD<sup>1</sup>, Hye-Kyung Lee, PhD<sup>2</sup>,  
Jun Won Kim, MD<sup>1</sup> and Kounseok Lee, MD<sup>1,3</sup>

<sup>1</sup>Department of Psychiatry, Gongju National Hospital, Gongju, Korea

<sup>2</sup>Health Service Center, G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Korea

<sup>3</sup>Department of Psychiatr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Objectives** In previous studies, both temperament and character were known as an important factor to determine the extent of social suppor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effects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on social support.

**Methods** A total 4329 participants completed questionnaires, which included Lubben Social Network Scale (LSNS),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This study used Pearson's correlation to evaluate the correlation between TCI dimensions and LSNS. To find the most influential TCI dimension for LSN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is study.

**Results** TCI dimensions showed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depending on gender ( $p<0.001$ ). LSNS had highest positive correlation with reward dependence ( $r=0.357$ ,  $p<0.001$ ). Three dimensions of TCI (Persistence, Self-Directedness, Cooperativeness)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LSNS ( $p<0.001$ ). Harm avoidance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LSNS ( $r=-0.237$ ,  $p<0.001$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ward dependence is the most influential TCI dimension ( $\beta=0.261$ ,  $t=15.963$ ,  $p<0.001$ ).

**Conclusion** This result shows that social support is affected by properties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Therefore, to measure properties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will help to assess social support.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3;52:157-162

**KEY WORDS** Temperament · Character · Social support.

Received December 5, 2012  
Revised March 27, 2013  
Accepted April 4, 2013

### Address for correspondence

Kounseok Lee, MD  
Department of Psychiatr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81 Irwon-ro,  
Gangnam-gu, Seoul 135-710, Korea  
Tel +82-2-3438-1282  
Fax +82-2-3438-0077  
E-mail countin@gmail.com

## 서론

사회적 지지는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내 존재 및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는 가족, 친구, 동료 등의 지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사회 내에서 안정감,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진다.<sup>1)</sup>

정신과 영역에서는 높은 사회적 지지를 가진 개인이 정신병의 발병 및 입원 횟수 감소 그리고 우울 및 불안증세 감소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sup>2-4)</sup>

사회적 지지는 일생 동안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하는 데 역시 중요한 도움을 주는 요소이다.<sup>5)</sup> Thoits<sup>1,6)</sup>는 사별, 실직과 같은 부정적 사건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사회적 지지가 중요함을 주장하였고, Hobfoll과

Walfisch<sup>7)</sup>는 여성 암환자들이 높은 사회적 지지를 가질수록 우울증세를 보이지 않고 당면한 현실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Pietrzak 등<sup>8)</sup>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 및 심리학적 회복탄력성이 높은 군에서 외상성 스트레스 및 우울증세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곧 사회적 지지가 삶의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의 발병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스트레스 사건과 우울증의 발병은 자살과 같은 정신과적 응급 발생을 높이는 위험인자이므로 이러한 환경에 처한 개인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sup>9)</sup> 여러 연구에서 높은 사회적 지지를 가진 개인이 급성 및 만성적 신체질환의 유병률 및 사망률 감소 그리고 뇌졸중 후 회복 촉진과 같은 신체적 질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sup>10-12)</sup>

Monroe와 Steiner<sup>13)</sup>는 사회구성원의 인격특성이 사회적 지지의 범위 및 질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았고, Gracia와 Musitu<sup>14)</sup>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여 고립을 초래할 경우 그들 개인의 정서와 사회를 인지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곧 사회구성원의 인격특성이 개인이 갖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Cloninger 등<sup>15)</sup>은 일반적으로 인격(personality)은 유전적, 생물학적 기반을 뜻하는 기질(temperament)과 사회적, 인지적 특성을 지니는 성격(character)으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기술하였다. 기질은 유전성을 가지며 시간의 변화에도 안정적인 특성을 지니는 데 반해 성격은 유전적 요소보다는 사회적, 환경적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형성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격의 두 가지 요소 중 사회적 지지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보다 성격특성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기질특성을 지닌 인간의 경우에도 주어진 환경과 작용하며 형성된 성격특성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행동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인격의 구성요소 모두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이전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와 기질 및 성격특성 간의 연관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지만<sup>16,17)</sup> 저자들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의 연구가 시행되지 않았다. Taylor 등<sup>18)</sup>은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라 사회구성원이 갖는 사회적 지지의 사용 및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는 곧 국내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자들은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회구성원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낮은 구성원들과는 다른 기질 및 성격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가설을 세웠고 일 대학에서 이루어진 대규모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기질 및 성격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방 법

### 대 상

본 연구는 2011년 공주대학교 보건진료소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설문 결과의 일부를 이용하였다. 설문을 완료한 총 4441명으로부터 결과를 수집하였고,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신질환 등 과거병력에 관한 설문 내용은 없었으며, 설문 당시 특별한 배제 기준은 없었다. 설문 결과에 대한 비밀 보장 및 연구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서면동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본 연구는 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쳤다.

### 도 구

기질 및 성격검사(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이하 TCI)는 Cloninger의 기질 및 성격의 심리생물학적 이론에 기반하여<sup>19)</sup> 개발된 검사도구로서 자극추구(novelty seeking, 이하 NS), 위험회피(harm avoidance, 이하 HA),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이하 RD), 인내력(persistence, 이하 P)인 4가지 기질과 자율성(self-directedness, 이하 SD), 연대감(cooperativeness, 이하 C),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 이하 ST)인 3가지 성격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sup>20,21)</sup> 본 연구에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성인용 기질 및 성격검사 개정 약식판(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Revised Short version)<sup>22)</sup>을 사용하였다.

Lubben 사회적 지지 척도 설문지(Lubben Social Network Scale, LSNS)

1988년 Lubben<sup>23)</sup>이 개발한 자가보고형 검사로서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이다. 사회적 지지를 가족체계와 교우체계, 상호의존 사회적 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지지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포함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0개 문항은 각 문항당 0~5점까지의 리커트(Likert) 척도로서 0~50점의 총점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사회적 지지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에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한국어판 Lubben Social Network Scale(이하 LSNS)을 사용하였다.<sup>24)</sup>

### 통계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성별에 따른 두 집단 간 TCI 차원 및 LSNS의 평균값과 분산 차이는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Pearson's correlation을 시행하여 LSNS 점수와 TCI 차원(dimension)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LSNS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TCI 차원을 확인하고자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LSNS를 설명하는 모형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인 TCI 차원을 투입하였고 LSNS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은 통제한 후 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모형의 중요한 가정인 여러 독립변수들 간의 독립성 여부를 평가하고자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이하 VIF)를 사용하였고 VIF가 10 이상인 경우 TCI

차원들 간의 다중공선성(collinearity diagnostics)이 존재하며 이는 곧 회귀모형이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모든 통계분석은 PASW version 18.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다. 각 분석에서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5% 미만으로 평가하였다.

## 결 과

###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전체 4441명으로부터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그 중 교직원으로부터 수거한 설문지 86부는 제외하였다. 총 4355개의 설문지 중 일부 문항을 작성하지 않은 26명을 제외한 4329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 범위는 만 18~56세로 평균 연령은 21.34세(표준편차 1.831)였고, 성별로는 남성이 2000명(46.2%), 여성이 2329명(53.8%)이었다(표 1).

### 성별에 따른 TCI 차원 및 LSNS의 평균값

성별에 따른 각 TCI 차원 및 LSNS는 유의미한 평균값의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4329)

	Male (n=2000)	Female (n=2329)
Age	21.93±1.863	20.85±1.647
College Education	300 (6.9%)	545 (12.6%)
Humanities & social sciences	214 (4.9%)	516 (11.9%)
Natural science	201 (4.6%)	219 (5.1%)
Engineering	907 (21.0%)	417 (9.6%)
Industrial science	254 (5.9%)	275 (6.4%)
Visual image & health	124 (2.9%)	357 (8.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Table 2.** Mean, standard deviation of TCI dimensions & total LSNS by gender (n=4329)

Variables	Mean±standard deviation		t	p
	Male (n=2000)	Female (n=2329)		
NS	37.68±9.38	38.94±9.86	-4.311	<0.001
HA	36.27±11.43	40.62±11.46	-12.484	<0.001
RD	46.75±8.64	49.00±9.36	-8.188	<0.001
P	46.31±9.99	42.73±9.75	11.914	<0.001
SD	47.59±10.94	43.46±10.61	12.597	<0.001
C	56.45±9.62	54.96±9.27	5.139	<0.001
ST	23.20±10.24	26.16±10.11	-9.540	<0.001
LSNS total	28.46±6.29	29.79±5.91	-7.159	<0.001

TCI :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NS : Novelty seeking, HA : Harm avoidance, RD : Reward dependence, P : Persistence, SD : Self-directedness, C : Cooperativeness, ST : Self-transcendence, LSNS : Lubben Social Network Scale

차이를 나타냈다. 7가지 TCI 차원 중 P, SD, C는 남성에서, NS, HA, RD, ST는 여성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값의 차이를 보였다( $p<0.001$ ). 또한 사회적 지지를 나타내는 LSNS의 경우에는 여성에서 유의미하게 평균값이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p<0.001$ )(표 2).

### LSNS와 TCI의 상관관계

Lubben Social Network Scale은 RD( $r=0.354$ ,  $p<0.01$ ), P( $r=0.151$ ,  $p<0.01$ ), SD( $r=0.229$ ,  $p<0.01$ ), C( $r=0.246$ ,  $p<0.01$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HA( $r=-0.235$ ,  $p<0.01$ )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7가지 TCI 차원의 하부항목 중에서는 친밀감을 의미하는 RD3에서 LSNS와 가장 뚜렷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0.335$ ,  $p<0.01$ ). 또한 자신의 가치 및 목표에 행동이 일치되는, 즉 자기일치를 의미하는 SD5( $r=0.208$ ,  $p<0.01$ ), 공감을 의미하는 C2( $r=0.271$ ,  $p<0.01$ )에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활력이 부족하고 쉽게 지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HA4 항목의 경우에는 LSNS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0.208$ ,  $p<0.01$ )(표 3).

### LSNS에 대한 TCI 항목들의 영향력

Lubben Social Network Scale은 종속변수, TCI의 7가지 차원을 독립변수, 성별을 통제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종속변수인 LSNS를 설명하는 모형이 도출되었으며 6가지 TCI 차원(HA, RD, P, SD, C, ST)이 종속변수인 LSNS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가지 TCI 차원 모두에서 VIF는 10 미만으로서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고 이는 곧 본 회귀모형의 기본 가정인 독립변수 간의 독립성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차원들 중 RD가 종속변수인 LSNS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LSNS에 대한 26.1%의 설명력을 갖는 결과를 보였다(표 4).

## 고 찰

본 연구는 개인의 기질 및 성격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인지의 차이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TCI 차원들 중 기질 특성인 RD와 P, 그리고 성격특성인 SD, C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HA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이전 연구에서 심한 외상과 같은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였음에도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개념인 심리학적

**Table 3.** Means of TCI subscales & correlation between TCI dimensions and total LSNS (n=4329)

Subscales	Mean±standard deviation	Pearson correlation
NS	38.36±9.66	0.051**
NS1	11.56±3.37	0.151**
NS2	9.35±3.37	0.003
NS3	8.46±3.70	0.008
NS4	9.07±3.22	-0.018
HA	38.61±11.65	-0.235**
HA1	10.04±4.20	-0.189**
HA2	10.32±3.06	-0.128**
HA3	10.08±4.14	-0.183**
HA4	8.42±3.47	-0.208**
RD	47.96±9.10	0.354**
RD1	12.80±2.88	0.230**
RD2	11.32±3.24	0.272**
RD3	12.84±3.53	0.335**
RD4	11.02±2.72	0.175**
P	44.39±10.02	0.151**
P1	10.73±3.17	0.134**
P2	11.11±3.20	0.141**
P3	12.40±3.30	0.121**
P4	10.17±3.37	0.066**
SD	45.37±10.96	0.229**
SD1	12.31±2.96	0.165**
SD2	11.20±3.59	0.165**
SD3	6.40±1.92	0.198**
SD4	4.22±1.66	0.164**
SD5	11.38±3.41	0.208**
C	55.65±9.46	0.246**
C1	12.77±3.10	0.120**
C2	10.18±2.53	0.271**
C3	10.35±2.55	0.201**
C4	8.08±2.73	0.108**
C5	14.33±2.83	0.149**
ST	24.80±10.27	0.061**
ST1	10.84±4.04	0.021
ST2	6.88±3.72	0.087**
ST3	7.55±4.84	0.036*

\* : p<0.05, \*\* : p<0.01. TCI :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NS : Novelty seeking, HA : Harm avoidance, RD : Reward dependence, P : Persistence, SD : Self-directedness, C : Cooperativeness, ST : Self-transcendence, LSNS : Lubben Social Network Scale

회복탄력성과 기질 및 성격특성 간의 상관관계 양상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sup>17)</sup>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서 알려져 있다. 이는 곧 힘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내는 능력인 심리학적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회적 지지를 가진 개인에서 증가하는 것과도 연관된다.<sup>25)</sup>

**Table 4.** Significant TCI dimensions associated with LSNS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n=4329)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Sex	0.108	7.309	<0.001
NS	0.031	1.898	0.058
HA	-0.067	-3.021	0.003
RD	0.261	15.963	<0.001
P	-0.041	-2.152	0.031
SD	0.148	6.034	<0.001
C	0.066	3.847	<0.001
ST	0.036	2.362	0.018
R square			0.168
Adjusted R square			0.166
F			115.451
p			<0.001

TCI :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LSNS : Lubben Social Network Scale, NS : Novelty seeking, HA : Harm avoidance, RD : Reward dependence, P : Persistence, SD : Self-directedness, ST : Self-transcendence, C : Cooperativeness

Thoits<sup>11)</sup>는 타인에 대한 공감적인 이해를 효과적인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요소임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LSNS는 TCI 차원인 C의 하위항목 중 타인에게 공감하는 성격특성을 의미하는 C2와 가장 뚜렷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0.271$ ,  $p<0.001$ ). C2가 높은 경우 타인의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정을 섬세하게 다루는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sup>22)</sup> 사회적 지지와 연관성을 갖는 성격특성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NS와 P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와 유의미하나 매우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우선 NS가 높은 경우 열정적이고 새로운 대인관계에 적응이 빠른 장점이 있지만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충동적이며 쉽게 화를 내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 친밀하고 지속적인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ST는 높을수록 타인과의 일체감을 잘 느끼는 장점이 있지만 이 또한 영적인 존재에 집착하거나 마술적 사고와 이상주의적 사고로 인해 현실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sup>22)</sup>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사회적 지지 정도와 NS 및 ST 간의 상관관계가 본 연구에서 매우 낮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한다.

7가지 TCI 차원 중 RD는 사회적 민감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본 차원의 점수가 높은 개인은 타인의 마음에 공감을 잘하고 따뜻하며 애정이 많아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는 특성을 나타낸다.<sup>22)</sup> 또한 Ball 등<sup>26)</sup>의 연구에서도 RD는 개인의 사회성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특히 사회적 지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이는 7가지 TCI 차원 중 RD가 LSNS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Reward dependence의 하위항목 중 LSNS와 가장 뚜렷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RD3은 친밀감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점수가 높은 경우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사생활을 중시하고 타인과 거리를 두는 성향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려울 수 있다.<sup>22)</sup>

다중회귀 분석 결과 TCI 차원들 중 RD( $\beta=0.291$ ,  $p<0.001$ ) 뿐만 아니라 SD( $\beta=0.131$ ,  $p<0.001$ )에서도 LSNS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Naito 등<sup>27)</sup>의 연구 결과 SD가 높은 개인은 더 나은 사회적 지지를 갖는 것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SD는 자율성을 나타내는 요인으로서 점수가 높은 경우 책임감 있고 성숙하며 자존감이 높아 집단을 잘 통합시키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sup>22)</sup> 높은 사회적 지지를 갖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서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SD가 낮은 경우 책임감이 부족하여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타인을 비롯한 환경적 요인에 대한 비난과 불평을 하는 성격적 특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sup>22)</sup>

Yuh 등<sup>28)</sup>은 HA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고 우울증세를 많이 나타내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HA는 LSNS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졌는데 이는 HA가 높은 개인에서 비관적이고 사회 상황에서 두려움이 크고 위축되는 기질적 특성으로 인해<sup>22)</sup>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고 이는 곧 전술된 바와 같이 우울증의 발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의 참여자가 일 대학의 학생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와 기질 및 성격특성 간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소 제한적이다. Furman과 Buhrmester<sup>29)</sup>는 나이에 따라 대인관계를 지각하는 데에 차이가 존재함을 주장하였고 Matt와 Dean<sup>30)</sup>의 연구에서는 교우관계와 같은 사회적 지지를 잃는 것이 고령에 이룰수록 더욱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나이에 따라 개인이 사회적 지지에 부여하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기질 및 성격특성 간의 연관성에 나이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LSNS는 노인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척도로서<sup>24)</sup> 본 연구 참여자들은 지방 일 대학의 학생들로 이들의 사회적 지지를 평가하는 데 다소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문항(결혼 관련)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에 관해 묻고 있어 연령에 따른 의미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및 성격특성

의 연관성이 있음을 보이고자 시행된 연구로서 저자들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국내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기질 및 성격특성의 연관성을 다루었던 이전의 국외 연구<sup>16)</sup>에 비하여 표본이 상당히 큰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기질 및 성격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인지를 본 결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자율성, 연대감이 높고 위험회피가 낮을수록 더 높은 사회적 지지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질 및 성격특성 중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애정이 많은 기질특성인 사회적 민감성이 사회적 지지의 인지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중심 단어 :** 기질 · 성격 · 사회적 지지.

##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 REFERENCES

- 1) Thoits PA. Social support as coping assistance. *J Consult Clin Psychol* 1986;54:416-423.
- 2) Huang MF, Yen CF, Lung FW. Moderators and mediators among panic, agoraphobia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in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Compr Psychiatry* 2010;51:243-249.
- 3) Norman RM, Malla AK, Manchanda R, Harricharan R, Takhar J, Northcott S. Social support and three-year symptom and admission outcomes for first episode psychosis. *Schizophr Res* 2005;80:227-234.
- 4) Cohen S, Wills TA.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 Bull* 1985;98:310-357.
- 5) Terry DJ, Rawle R, Callan VJ.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adjustment to stress: the mediating role of coping. *Pers Relatsh* 1995;2:97-124.
- 6) Thoits PA.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es: where are we? What next? *J Health Soc Behav* 1995;Spec No:53-79.
- 7) Hobfoll SE, Walfisch S. Coping with a threat to life: a longitudinal study of self-concept,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 J Community Psychol* 1984;12:87-100.
- 8) Pietrzak RH, Johnson DC, Goldstein MB, Malley JC, Southwick SM.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ostdeployment social support protect against traumatic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 soldiers returning from Operations Enduring Freedom and Iraqi Freedom. *Depress Anxiety* 2009;26:745-751.
- 9) Kaplan HI, Sadock BJ. Kaplan and Sadock's. *Synopsis of psychiatry*. 10th ed. United States: Lippincott Williams & Wilkins;2007. p.896-899.
- 10) Uchino BN. Understanding the links between social support and physical health a lifespan perspective with emphasis on the separability of perceived and received support. *Perspect Psychol Sci* 2009;4:236-255.
- 11) Tsouna-Hadjis E, Vemmos KN, Zakopoulos N, Stamatelopoulos S. First-stroke recovery process: the role of family social support. *Arch Phys Med Rehabil* 2000;81:881-887.

- 12) Tomaka J, Thompson S, Palacios R. The relation of social isolation, loneliness, and social support to disease outcomes among the elderly. *J Aging Health* 2006;18:359-384.
- 13) Monroe SM, Steiner SC. Social support and psychopathology: interrelations with preexisting disorder, stress, and personality. *J Abnorm Psychol* 1986;95:29-39.
- 14) Gracia E, Musitu G. Social isolation from communities and child maltreatment: a cross-cultural comparison. *Child Abuse Negl* 2003;27:153-168.
- 15) Cloninger CR, Svrakic DM, Przybeck TR. A psychobiological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rch Gen Psychiatry* 1993;50:975-990.
- 16) Kitamura T, Kijima N, Watanabe K, Takezaki Y, Tanaka E. Preceden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early life experiences. *Psychiatry Clin Neurosci* 1999;53:649-654.
- 17) Ghazinour M, Richter J, Eisemann M. Personality related to coping and social support among Iranian refugees in Sweden. *J Nerv Ment Dis* 2003;191:595-603.
- 18) Taylor SE, Sherman DK, Kim HS, Jarcho J, Takagi K, Dunagan MS. Culture and social support: who seeks it and why? *J Pers Soc Psychol* 2004;87:354-362.
- 19) De Fruyt F, Van De Wiele L, Van Heeringen C. Cloninger's psychobiological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Personal Individ Differ* 2000;29:441-452.
- 20) Tomita T, Aoyama H, Kitamura T, Sekiguchi C, Murai T, Matsuda T. Factor structure of psychobiological seven-factor model of personality: a model-revision. *Personal Individ Differ* 2000;29:709-727.
- 21) Hansenne M, Reggers J, Pinto E, Kijiri K, Ajamier A, Ansseau M.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and depression. *J Psychiatr Res* 1999;33:31-36.
- 22) Min BB, Oh HS, Lee JY. Manua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Seoul, Korea: Maumsarang;2007. p.15-44.
- 23) Lubben JE. Assessing social networks among elderly populations. *Fam Community Health* 1988;11:42-52.
- 24) Lee KW, Kim SY, Chung W, Hwang GS, Hwang YW, Hwang IH.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Korean version of lubben social network scale. *Korean J Fam Med* 2009;30:352-358.
- 25) Davydov DM, Stewart R, Ritchie K, Chaudieu I. Resilience and mental health. *Clin Psychol Rev* 2010;30:479-495.
- 26) Ball S, Smolin J, Shekhar A. A psychobiological approach to personality: examination within anxious outpatients. *J Psychiatr Res* 2002;36:97-103.
- 27) Naito M, Kijima N, Kitamura T.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as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Japanese college students. *J Clin Psychol* 2000;56:1579-1585.
- 28) Yuh J, Neiderhiser JM, Spotts EL, Pedersen NL, Lichtenstein P, Hansson K, et al. The role of temperament and social support in depressive symptoms: a twin study of mid-aged women. *J Affect Disord* 2008;106:99-105.
- 29) Furman W, Buhrmester D.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 1992;63:103-115.
- 30) Matt GE, Dean A. Social support from friend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elderly persons: moderator effects of age. *J Health Soc Behav* 1993;34:187-200.